

빨간불 제조업 살리려면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성장 활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적색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우선 설비투자의 부진 양상이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연평균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2%로 8~90년대 증가율인 10%대의 1/5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 선진국들이 기록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투자 부진으로 생산 능력 증가율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번 1/4분기 제조업의 생산 능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대 증가에 그쳤다. 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능력 증가세가 하락하더니, 결국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일 기록한 것이다. 문제의 보다 큰 심각성은 제조업의 활력 저하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전기에 비해 0.8%나 감소하여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0.2% 포인트나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급감하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89년에 28%였으나 2006년에는 19%로 낮아졌다. 선진국들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훨씬 빨리 축소되고 있고, 동일 국민 소득 수준에서의 제조업 고용 비중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 국내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진다면 수출 대국의 꿈도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제조업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아직까지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제조업을 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저학력, 비전문직의 고용을 증대시킴으

로써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의 주요 수요 기반이 제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조업의 쇠락은 서비스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실현되고 있어 제조업이 국내 경제를 혁신하는 모태라는 점도 다시금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다.

점차 사그라지는 제조업의 불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우선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이 신기술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제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은 이를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였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과감하고도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왕성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로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창업부터 각 성장 단계별에 맞는 맞춤형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제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회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대량 고용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은 노사가 한 마음으로 회사를 키워가는 데 있다. 이제 과격한 노사 갈등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노사간 상생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일본 제조업 성장의 비결 중 하나는 현장 근로자들이 주도하여 고부가가치 제조 능력을 키우는 ‘모노즈쿠리’ 문화에 있다고 알려진다. 한국 제조업에서도 경영을 둘러싼 투쟁적 노사 문화보다는 세계 최고의 제조품을 만들려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품 혁신 전략을 궁리하는 ‘현장 중심의 상생과 창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